

뉴욕은 환호하고 아시아는 경계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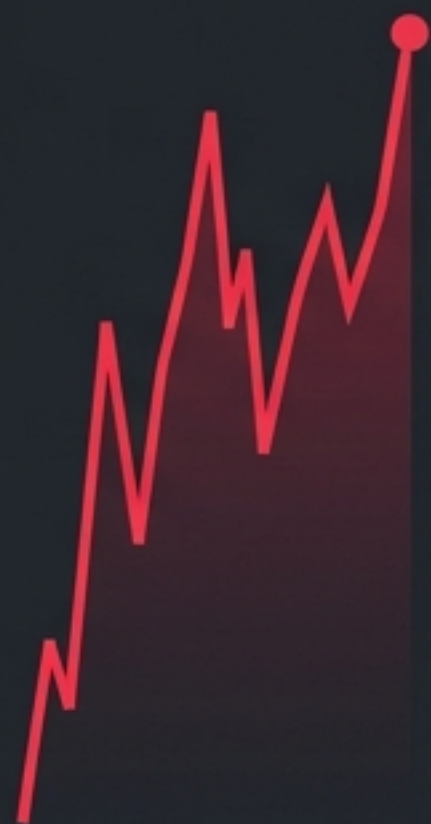
미국 증시 급등

다우존스

47,909.92
(+2.85%)

나스닥

(+0.17%)



미·이란 2주 휴전 전격 합의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.

한국 증시 이탈

KOSPI

5,778.01
(-1.61%)

붕괴



외국인 8천억 원 순매도.
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우려.

모순의 FICC

WTI 원유

\$97.75 (+\$2.6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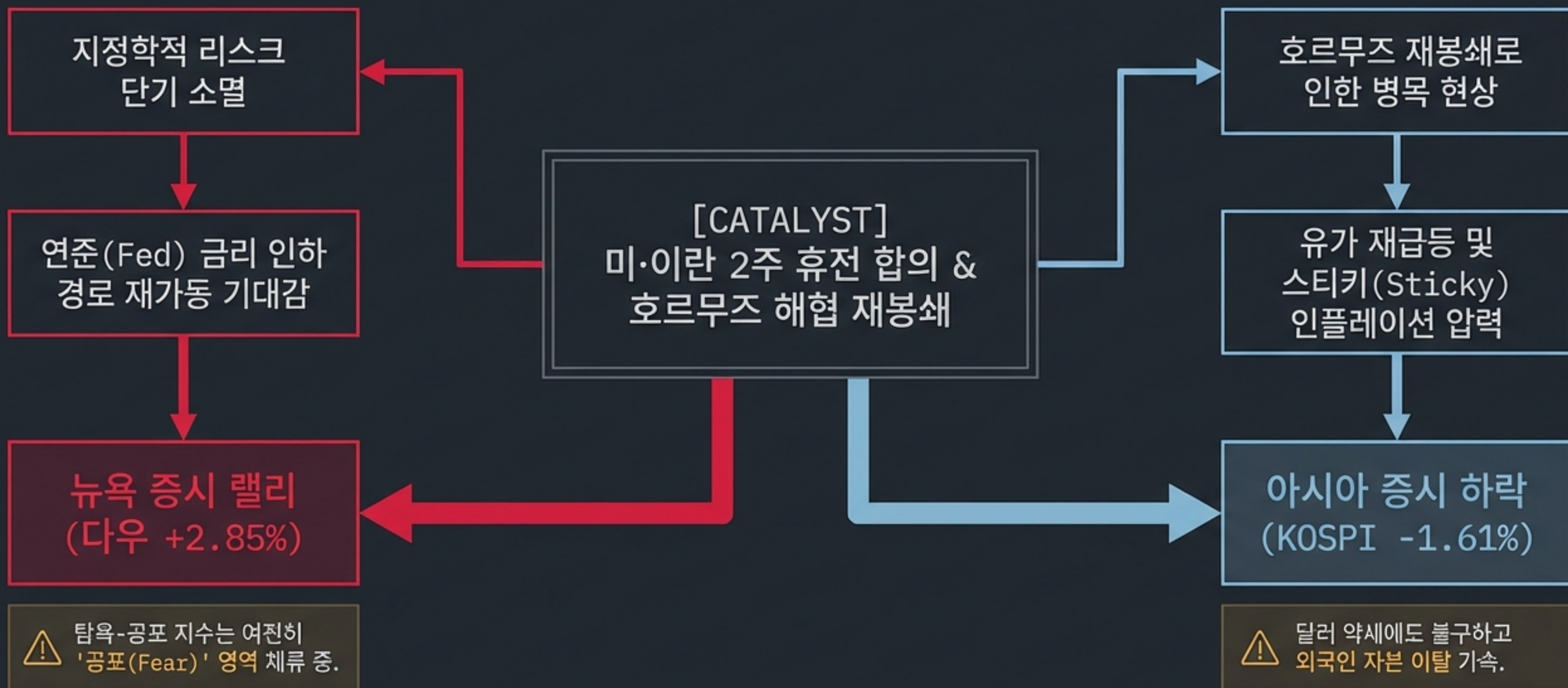
금

\$103,000
(+\$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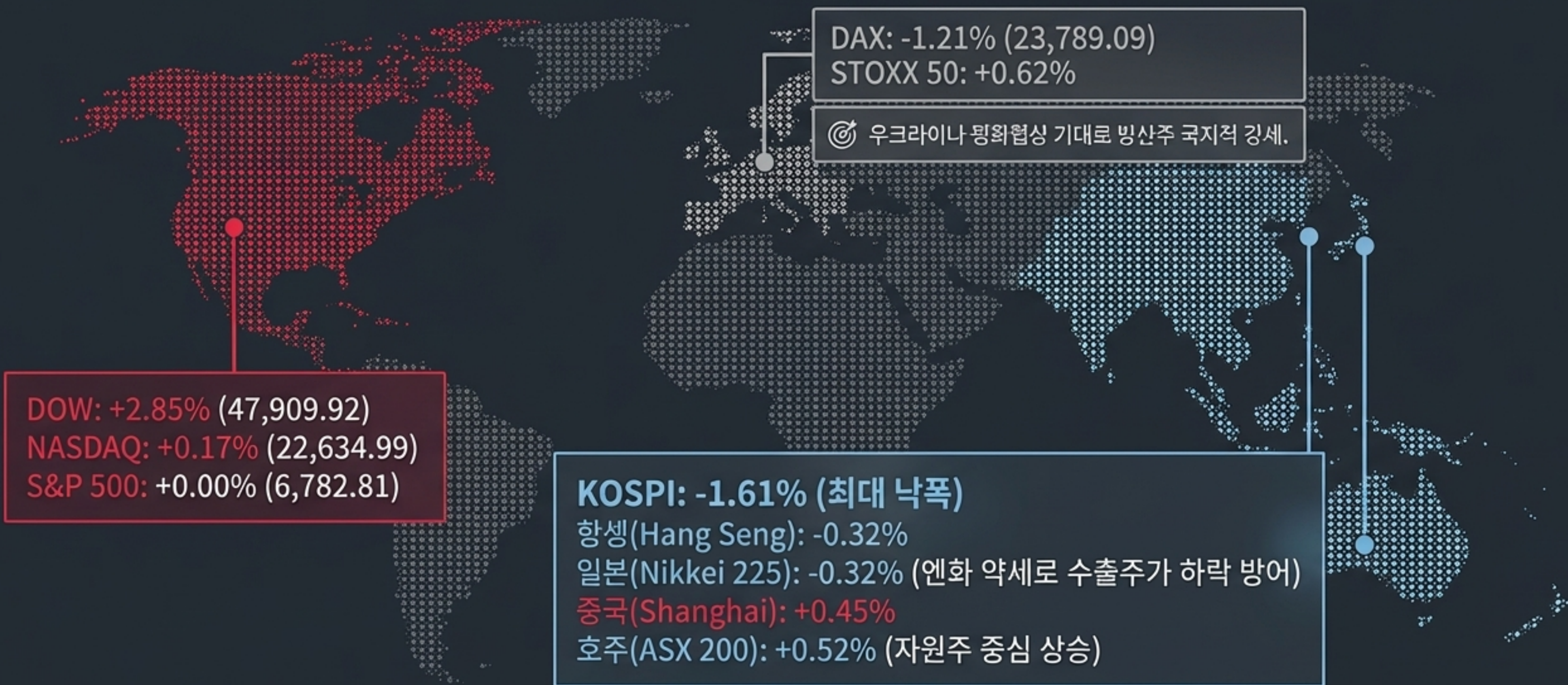


휴전에도 치솟는 유가와
안전자산. 호르무즈 재봉쇄 충격.

단일 이벤트, 양극단의 해석 체계



글로벌 자본 지형도: 서구권의 안도, 아시아의 긴장



크로스보더 진단표: S&P 500 vs KOSPI

	[US] 미국 시장	[KOR] 한국 시장
핵심 동력	휴전 합의에 따른 금리 인하 베팅 (다우 600p 이상 급등)	중동 정세 불안 및 유가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경계
수급 주체	기관 및 리테일 매수세 유입 (한국 서학개미는 순매도로 전환)	외국인 8,000억 원 연속 순매도 / 기관 1,341만 주 매도 폭격 (개인 50만 주 매수로 방어 불가)
주도 섹터	부동산 (+7.42%), 에너지 (+2.00%)	화학 (+2.42%), 음식료품 (+1.65%) - 전형적인 방어주 선호
시장 심리	지수 급등에도 '공포(Fear)' 심리 잔존	5,800선 붕괴에 따른 추가 하락 리스크(Tail Risk) 부각

코스피 내부 자본 이동: 경기민감주 이탈과 방어주 피난

기아: -5.46% (150,500원)

LG에너지솔루션: +3.69% (421,000원) The Safe Havens

The Sell-Off

현대차: -3.64% (489,500원)

LG화학: +3.05% (355,000원)

The Sell-Off

SK하이닉스: -3.39% (998,000원)

화학 섹터 전반: +2.42%

The Sell-Off

삼성전자: -3.09% (204,000원)

음식료품 섹터: +1.6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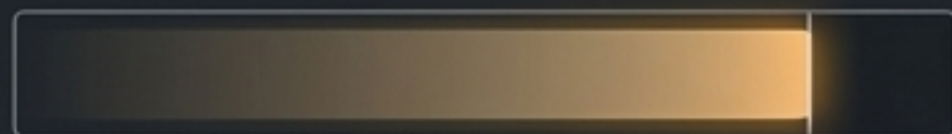
시총 상위 대형 수출주에
외국인 매도 물량 집중.

경기 방어적 성격의 내수주와
2차전지 일부 종목으로 수급 피난.

FICC 레이다: 매크로 모순이 격돌하는 교차로

미 국채 10년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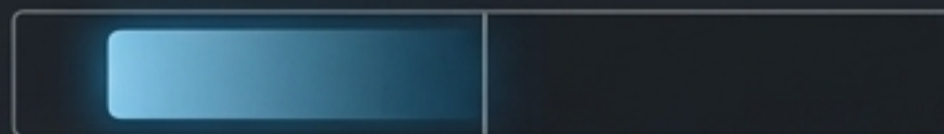
4.291% (+5bp)



증시는 금리 인하를 환호했으나, 채권 시장은 FOMC 매파 기조를 반영해 금리 상승.

환율 변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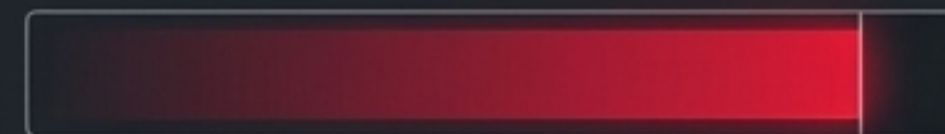
원/달러 1,478.35원 (-5.30원)
달러인덱스 0.5 (-0.32)



유로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. 한국 증시 외인 이탈에도 원화는 상대적 강세 시현.

WTI 원유

\$97.75 (+\$2.62)



[핵심 모순]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, OPEC 감산 연장과 호르무즈 재봉쇄가 유가 끌어올림.
(한국 정부 3차 석유 최고가 동결 단행)

얼터너티브 대피소: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랠리



신형 유동성 흡수처, 비트코인 (BTC)

\$103,000 (+\$1,240 상승) ↗

지속적인 현물 ETF 순유입 및 기관 자금의 해킹 수요.

신형 유동성 흡수처, 비트코인 (BTC)

\$103,000 (+\$1,240 상승) 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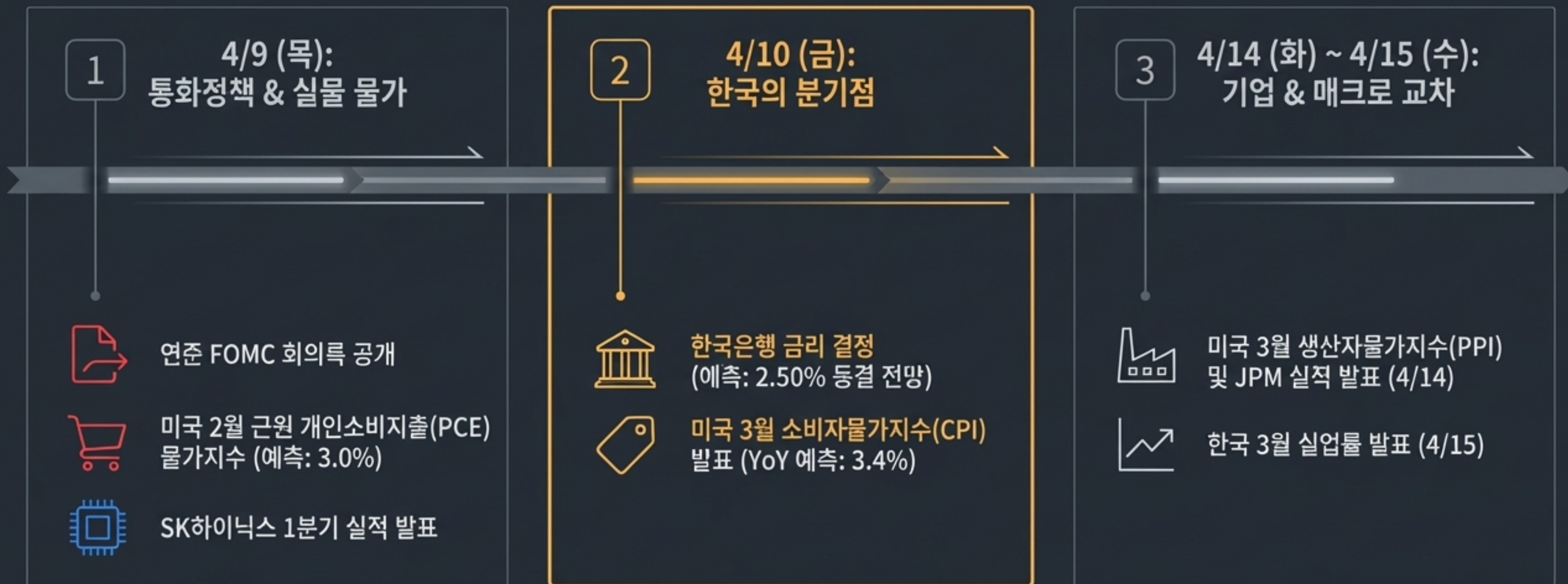
지속적인 현물 ETF 순유입 및 기관 자금의 해킹 수요.

Synthesis Box

The \$103K Convergence

지정학적 불안감이 법정화폐(Fiat) 시스템 밖의 두 자산군으로 자본을 동시에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.

인플레이션 주간: 궤도를 결정할 핵심 촉매제



이번 주 물가 지표(PCE, CPI) 결과가 유가 급등과 맞물려 글로벌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재조정할 핵심 변수.

터미널 뷰: 불확실성 국면의 전략적 시사점



매크로 패러독스

뉴스는 평화를, 가격은 위기를 가리킨다.

미국 증시의 안도 랠리 이면에는 여전히 '공포' 심리와, 휴전을 무색하게 만드는 **97달러 선의 유가 급등**이 공존.



잠재 리스크

한국 증시의 취약성 노출.

외국인 **8천억** 대규모 매도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'유가 급등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' 우려를 선반영한 결과.



포지셔닝 가이드

방어력 구축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.

코스피 추가 하락(**5800선 붕괴 이후**)에 대비한 숏 헤징(Hedging) 검토.

단기 저가 매수보다는 화학/음식료 등 방어주 압축, 그리고 금/비트코인 등 헷지 자산군으로의 비중 확대 유효.